논어 14편 헌문 42장 · 원문·풀이

子擊磬於衛。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，曰：「有心哉！擊磬乎！」既而曰：「鄙哉，硜硜乎！莫己知也，斯已而已矣！『深則厲，淺則揭。』」子曰：「果哉！末之難矣！」

독음 · 자격경어위 유하궤이과공씨지문자 왈 유심재 격경호 기이왈 비재 갱갱호 막기지야 사기이이의 심즉려 천즉게 자왈 과재 말지난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경쇠 소리를 듣던 은자가 알아주는 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자, 공자는 세상을 단호히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擊 擊과 同字 격 / 磬 경쇠 경 경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衛 막을 위 위 / 有 있을 유 / 荷 연 하 하 / 蕢 삼태기 궤

而 말이을 이 / 過 지날 과 과 / 孔 구멍 공 공 / 氏 성 씨 씨

之 갈 지 / 門 문 문 문 / 者 놈 자 / 曰 가로 왈

心 마음 심 심 / 哉 비로소 재 재 / 乎 어조사 호 / 既 이미 기

鄙 다라울 비 비 / 硜 아릿아릿할 갱 갱 / 莫 없을 막 막 / 己 자기 기 기

知 알 지 / 也 어조사 야 / 斯 이 사 사 / 已 이미 이 이

矣 어조사 의 / 深 깊을 심 심 / 則 곧 즉 / 厲 갈 려 려

淺 얕을 천 천 / 揭 높이 들 게 게 / 果 실과 과 과 / 末 끝 말 말

難 어려울 난 난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